새학기 첫날, 농산어촌 작은학교에서 찾는 '전남교육 희망'

무안 청계초, 신입생 11명과 교육공동체와 '소통의 시간'
김대중 교육감, 청계초 입학식 참석 '위기 극복' 의지 천명

"교육감 할아버지! 입학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난 2일 전남의 농산어촌 작은학교인 무안 청계초등학교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전남교육을 이끌고 있는 김대중 교육감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11명)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축하한 뒤 교육공동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이 새 학기 첫 현장 방문지로 청계초를 선택한 것은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전남교육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비록 입학생 11명의 '작은 입학식'이지만, 위기의 전남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교육의 유일한 희망은 작은 학교 장점을 살린 매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작은 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판단이다.

김 교육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전남교육이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청정 자연환경과 개별화 교육에 유리한 장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전남만의 장점과 강점을 살린 지역 특성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30년 청계공립보통학교로 문을 연 청계초등학교는 한 때 전교생 900여 명의 제법 큰 학교였지만, 지금은 100명 남짓의 아담한 규모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매년 신입생이 10여 명 이상 들어오면서 당장 폐교 걱정을 해야 하는 다른 농산어촌 학교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학교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그 역할과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당당하게 그 존재가치를 이어감은 물론 미래의 '희망'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와 주민들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만 보아도 힘이 절로 솟는다."며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는 마당에 학교마저 없으면 시골 마을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김 교육감은 입학식이 끝난 뒤 청계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민들을 만나 농어촌 작은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작은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정책을 기대한다."며 "도시 학생이 오히려 농촌학교로 전학 오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남의 장점을 살린 교육력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도민께 약속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실현하고 교육력을 끌어올려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성 삼계고, 부사관과 신입생 적응교육 실시

정예부사관 양성의 요람 삼계고등학교는 지난 2월 26일 ~ 3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202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입생들에게 학교 생활의 이해와 체험을 통해 적응력을 높이고 예비부사관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선후배 동료간 양보와 배려,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 하였다.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대책 준수 및 안전과 건강관리에 우선을 두고 개인별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차별로 소통-복종-극기-명예로 핵심 가치를 설정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 내용은 개인별 건강 체크리스트 및 설문지 작성부터 기숙사 생활 안내, 안전교육 및 화재 대피 훈련, 친교의 시간, 제식훈련과 국군도수체조, 군가 교육, 26.2㎞ 주·야간 행군, 부사관 선배 초청 강의 및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과 무선 통화를 이용하여 격려 및 조언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신입생들은 처음 해보는 장거리 행군에 두려움도 가졌고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오는 등 고통이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삼계고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멋지게 마칠 수 있었다.

신입생 황정인 학생은 "모든 과정을 삼계고의 학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믿고 참여하였으며, 7시간 동안 행군을 통해 부상 당한 친구,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서로 도와주면서 동료 의식이 무엇인지, 옆에 있는 친구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함께 한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주 교장은 신입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신입생들에게 오늘같은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학교 생활을 당부하였다.

이번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 안전 및 건강관리 및 교육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신입생들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신속히 적응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 생활의 힘 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장성=김수권 기자

강진교육청, '제51회 강진 청자축제'와 연계한 청렴 캠페인 실시

일반 군민 및 관광객 대상

강진교육지원청은 반부패 방지 및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근 강진군 대구면에서 실시하는 「제51회 강진 청자축제」에서 일반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강진교육지원청은 공익·부패신고 안내 리플릿과 방역 손세정·물티슈를 직접 전달하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청렴한 마음을 전하는 청렴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강진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 청렴교육, 청렴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광희 교육장은"청렴캠페인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가 학교와 가정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청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교육청, 새 학기 맞이 생활지도 캠페인 전개 나서

'학교폭력 예방·학업중단 예방·생명존중·교통안전·흡연 예방' 관련

진도교육지원청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교원 및 학생자치회·학부모·진도경찰서·지역사회연합 학생생활지원단과 합동으로 새 학기 맞이 생활지도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3월 2일 추운 날씨에도 진도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진도중을 시작으로 8일 진도실고, 15일 진도초, 22일 진도고에서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학업중단 예방·생명존중·교통안전·흡연 예방'관련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작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구호로 외치며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새겨진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흡연 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진도중 학생은"새 학기 새 기분으로 등교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서 참 뿌듯했다. 앞으로도 행복한 진도중학교를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잘 대해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